

5000억 투자 기업 부지 무상 제공하고 1000억 보조금

전남도 포스트 코로나 '1000억대 투자유치 프로젝트' 가동

전남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리고, 50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를 무상 제공 또는 무상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대기업 유치가 사활을 걸겠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23일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맞춰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제도를 마련, '1000억대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과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 이탈 등으로 정부가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전남도는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제도를 전면 개정해 이들을 유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에너지·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해 '전라남도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지침'을 개정, 대규모 기업이 500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시·군 등과 협의해 투자 부지를 무상제공 또는 무상 임대해주기로 했다.

또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을 투자액과 고용 규모에 따라 1000억원까지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정했으며, 1000억원 이상 투자기업 대상 기반·편의 시설 지원을 비롯 전국 최초로 국내 복귀 기업의 설치 이전에 따른 선박·항공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복귀 기업 선박료 지원
파격적 인센티브제도 마련
바이오·에너지·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에 사활

이같은 모든 지원은 최종적으로 시·군과 협의의 후 전남도 투자유치협의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주기 산업인프라를 갖춘 바이오의약과 혁신도시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섬·해양관광, 중대형 드론·PAV(Personal Air Vehicle) 및 e-모빌리티 등 지역 비교우위 산업자원과 규제자유특구(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등 차별화된 각종 지원제도를 연계한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 시·군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목표 기업별 TF팀을 구성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이차전지(배터리) 제조사는 물론 해외 리소어링 기업도 유치하기 위한 틈새 전략을 세워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첨단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한 대담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개편된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민선 7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 1000개 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524개 기업과 15조984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 대통령 "코로나19 통제 범위안에...조그만 더 힘 내달라"

3차 추경안 처리 거듭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은 여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이제는 지지기도 하고 폭염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국민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방역 노력

이) 절실하다"며 "신규 확진자 수를 줄여 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고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의 안정은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까지 지자체는 의료진 지원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친 주민을 지원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지자체의 창의적 사고와 신속한 현장대응은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보여줬다"며 "부처들은 지자체가 현장 방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

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국회의 신속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의 원 구성 지연으로 국회는 20일째 심의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추경안 처리 촉구는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역풍 맞을라"...민주 전대 주자들 출마선언 내달로 잇따라 연기

이낙연 "추경 등 고려 결정"

김부겸·우원식 시점 늦춰

국회 원 구성 지연과 남북관계 악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7월 초로 늦춰질 전망이다. 선불리 출마 선언에 나서 당권경쟁을 가열시키면 흥행은 커녕 여론만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낙연 의원은 23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3차 추경안의 시의적절한 처리가 중요해 아직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며 "추경 처리 과정과 북한 상황 등을 고려해 출마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달 말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의원 측이 시기를 늦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후보들도 출마 선언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 측은 "위기 상황 속에서 아직 원 구성도 안 된 상태"라면서 "지금 분위기에 당권 경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의 흥영표 의원이 이 의원이 나 김 전 의원의 출마 시점을 보고 그 전후로 최종 선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들은 후보 등록일(7월 22일)까지 한 달 가량 남은 만큼 출마 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할 타이밍 찾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각 당권 후보 측은 의원모임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현안 대응과 물밑 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코로나 국난 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비행태와 인구구조 변화로 고통에 내몰리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이

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지만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생계지원금과 은누리상품권 지원을,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비대면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업종 전환이나 다른 사회안전망 편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제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고, 홍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경제 분야 토론회를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영남·강원권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하는 '해돋이 모임'의 만찬 회동에 참석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간 박원순·이재명 '코로나 방역' 머리 맞대 수도권대책회의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2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조짐을 보임에 따라 수

도권 광역단체장 간 정보교류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 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10%에 이르는 등 현 방역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았다"고 진단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시장은 총 20만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시행 계획과 함께 3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30명이 발생하거나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할 경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가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